

‘전통제다’ 중요무형문화재 되나

(傳統製茶)

문화재청 신규종목 지정예고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물 가운데 하나인 차(茶), 불교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차를 만드는 제조법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제다(傳統製茶)’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전통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를 이용해 차를 만드는 기법이다. 찌거나 볶은 찻잎을 비비거나 찢고, 압착, 건조 등을 거쳐 차를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로 뒤음차를 비롯해, 익힌 찻잎을 찢어서 떡처럼 만든 떡차, 발효차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차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전 해진다. 흥덕왕 3년(823) 김대겸이 당나라로부터 차를 들여와 지리산 인근에 차를 심고, 이후 진감선사가 하동 쌍계사와 화계

인근에 차밭을 만들면서 차문화가 시작됐다.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충담스님이 3월3일과 9월9일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에 차를 달여 올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고려 때는 왕이 신하에게 차를 선물하는 등 왕실과 귀족계층의 문화로 향유되기도 했다.

특정 보유자 단체 인정 않고 기록화, 진흥사업 지원 계획

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다. 스님은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를 집필했으며,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등 당대 지성과 차와 사상을 교류하는 등 제다의 역사 가 깊다.

문화재청은 전통제다의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 제다법에 대한 기록화 사업과 각종 진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방식과 여러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오늘날까지 공유·전승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산업 중 하나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랫동안 차 제조기술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차 만드는 과정에서 고유성과 표현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통제다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전통제다에 대해 30일 이상 공고해 의견을 청취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예방을 받고 “전통과 현대문화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정치·경제민주화 조화...국민행복 힘써달라”

총무원장 스님, 김종인 대표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예방을 받고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잘 이뤄 국민행복과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러한 조화 속에 전통과 현대문화가 융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원들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좀 더 일찍 찾아뵙어야 했는데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어려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꾸려나가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김 대표의 지혜로움으로 잘 통합되기를 기원

한다”고 격려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분열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당을 나간 분들이 주장했던 명분도 사라진 만큼 다시 통합을 해보자고 제의했다”고 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지난해 7월 총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김 대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력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지현스님과 기획실장 헤일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과 강창일, 임수경, 박수현 국회의원 등이 배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전국비구니회 ‘포교활성화 방안’ 만든다

총회의원 추천, 운영위 규정 등

24일 정기총회서 회칙 제·개정

지난해 출범한 제11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가 최근 지회결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국비구니회는 24일 오후1시부터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범룡사 내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요 안건은 회칙 제·개정과 지회구역확정의 건, 중장기 사업 승인 및 2016년 예산승인의 건이다.

회칙 개정의 주요 핵심은 운영위원회 관련 법안, 기준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할

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계종 중앙총회 비구니 의원 스님 추천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더불어 회칙의 전반적인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회 구성은 지난 1월22일 대전지회 구성을 시작으로 집행부가 직접 부산·대구·경남·광주·전남·제주 등 지역을 찾아 지회구성을 독려했다. 제주를 끝으로 전국 지회 구성을 마친 전국비구니회는 이번 총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활동구역을 일부 재조정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이 지역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포교와 대사회활동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기본 사업 및 중장기 사

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도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 사서실장 진명스님은 “지회 결성 과정 등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전국비구니회 발전과 포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주요 사업안을 확정하고, 중장기 사업안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총회에 이어 이날 3시30분부터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총회에서 개정된 운영위원회 관련 법에 의해 진행될 예정인 운영위원회는 각 지회 회장 스님과 집행부 스님, 총회에서 인준한 스님들이 참여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안진숙 기자 jsahn@ibulgyo.com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당선

“교구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조계종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후보에 허운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허운스님은 지난 2일 열린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투표 없이 차기 주지후보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운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관음사 산중총회는 지난해 10월 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진행되다가 후보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 중지됐다. 당시 후보자였던 동제스님, 원경스님 등 2명의 후보자가 사퇴한



가운데 지난 2일 산중총회 절차가 재개돼 허운스님을 단독후보로 지리했다.

관음사 주지후보 허운스님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구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허운스님은 송광사에서 현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광사 일산본원 정혜사 주지, 서봉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장 신도시포교종중특별보좌관,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종단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 실시

총무원 문화부, 3월25일까지 접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 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종단의 총지와 총풍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련 단체 △창단한지 2년 이상 경과된 문화관련 단체 △종단 법인관리 및 불교문화진흥법에 따른 종단등록 법인단체 스매

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및 전시출품(장작활동)의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동참하려면 신청공문, 불교문화단체 등록신청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업계획서, 임원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사

업은 종단 불교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등록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미 등록된 단체라도 등록취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유의사항도 각별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3월2일 중무회의)

| | | | | | | | |
|----------------|----------------|----------------|----------------|-----------------|----------------|----------------|----------------|
| | | | | | | | |
| 황노스님 제천 무암사 | 진안스님 청원 금강사 | 서호스님 청양 장곡사 | 밀본스님 춘천 정법사 | 천은스님 김천 개운사 | 보륜스님 김천 고봉사 | 원산스님 예천 한천사 | 범륜스님 상주 서진암 |
| | | | | | | | |
| 덕해스님 대구 청용사 | 금담스님 거창 금룡암 | 수현스님 거창 정토사 | 학봉스님 함안 무학사 | 일운스님 대구 해인정사 | 보각스님 부산 천안사 | 지명스님 창원 도솔암 | 지안스님 태안 인연암 |

2016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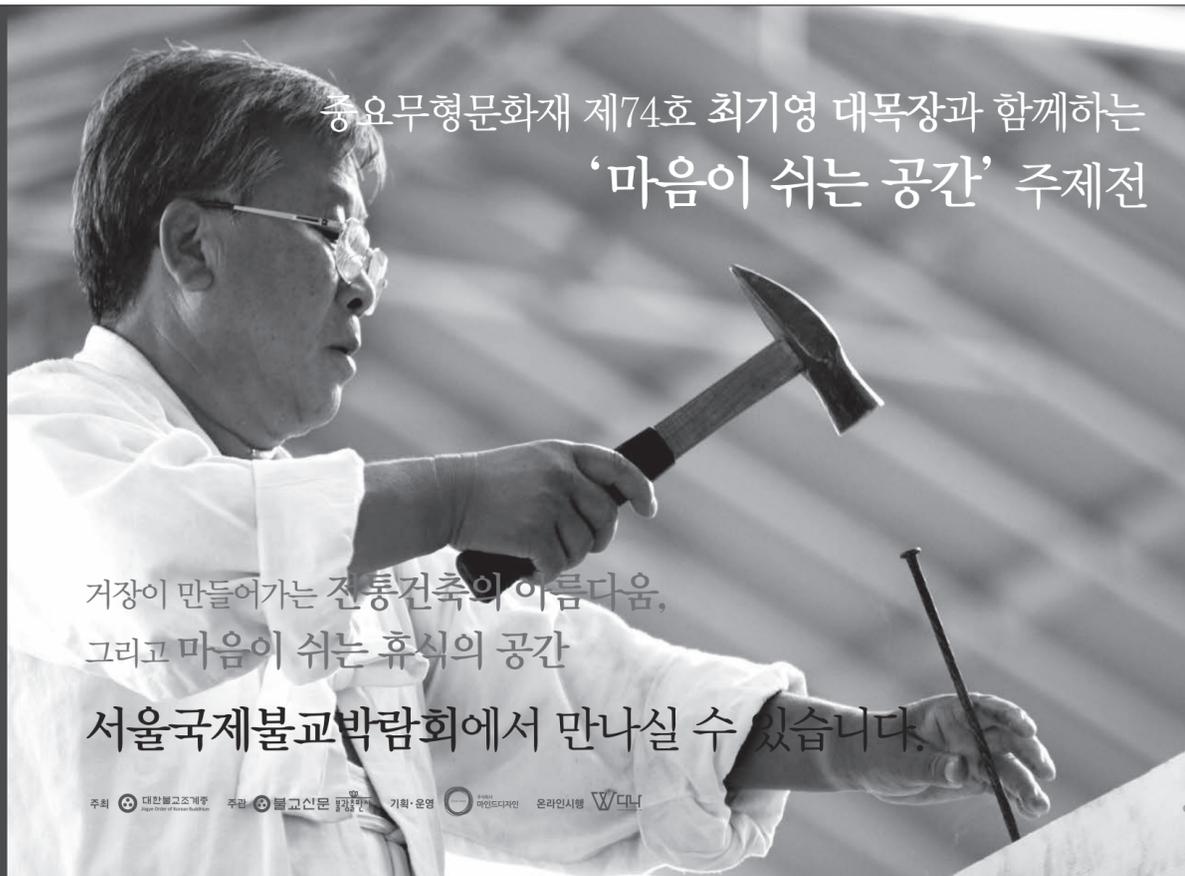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

3.24(목)

3.27(일)

서울무역 전시컨벤션센터 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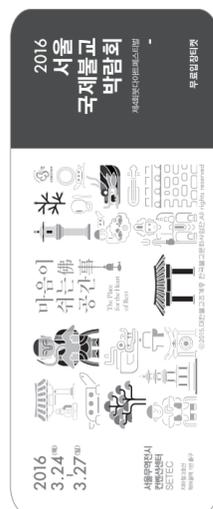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최기영 대목장과 함께하는 ‘마음이 쉬는 공간’ 주제전

거장이 만들어가는 전통건축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음이 쉬는 휴식의 공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불교신문, 후원: 기획·운영, 후원: 마린디자인, 온라인시행: W다인

※미니켓트 지참시 무료입장 (입장료 3,000원)



※ 입장수익금은 참가 NGO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